

# 지역인재 육성해 인력난 해소... 산업부, 채용연계사업 추진

##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전문인력 양성·중견 채용연계  
충남·경남·울산 컨소시엄 선정  
년 13.8억... 5년간 30여 명 양성

지자체와 대학, 중견기업 등이 힘을 합쳐 지역인재를 양성해 채용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및 채용연계를 위해 지자체-대학-중견기업-

##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 선정>

| 지역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 충남 | 공주대학교 | 주식회사 코넥, ㈜용산, 한국자동차연구원        |
| 경남 | 창원대학교 |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위딘          |
| 울산 | 울산대학교 | 코리아피티지(주), 코스모화학주식회사, 울산테크노파크 |

혁신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올해 미래차(충남), 금속 3D프린팅(경남), 이차전지(울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이날 공주대 천안캠퍼스에서 '채용연계형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현판증

정식'을 개최했다.

미래차 컨소시엄은 공주대와 주식회사 코넥, 주식회사 용산,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3D프린팅 컨소시엄은 창원대,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위딘이, 이차전지 컨소시엄에는 울산대와 코리아피티지, 코스모화학주식

회사, 울산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컨소시엄 당 연간 13억8000만원 씩 5년간 69억원씩 지원을 통해 공동연구개발 기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과 중견기업 채용연계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내년엔 3개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컨소시엄 참여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및 해당 지역 내 대학과 연구기관 등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교, 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견기업, 대학, 지자체, 혁신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 컨소시엄이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운영,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을 발

표했다. 컨소시엄은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30여명 내외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해 사업 참여 중견기업에 채용 연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지역 중견기업들은 우수 연구인력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등 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개발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성장 잠재력 하락... 3대 개혁에 역량 집중” 단백질 바 65%, 밥 한공기보다 열량 높다

## 추경호 부총리, 1000조 나라빛 우려 첨단산업·기술분야 R&D 투자 확대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 계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가채무가 급증해 1000조 원을 넘어선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또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구조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산재한 가운데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국가채무가 1053조 원에 달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첨단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R&D(연구·개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공급망 확보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개회사에서 그는 "대한민국은 일곱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며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자신감을 개도국과 공유해 명실상부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경제개발 리더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프로바 등 5개 제품 250Kcal 넘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고려해 선택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 바 가운데, 열량이 쌀밥 한 공기 섭취 열량보다 높은 제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인식되며 단백질 바 제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5일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 바 제품 20개에 대한 영양성분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 단백질 바의 열량은 제품 1개당 최저 136Kcal(제품중량 32g) ~ 279Kcal(제품중량 70g)으로 조사대상 제품 중 65%가 밥 한 공기 열량(215Kcal/150g기준)보다 높았다.

제품별로 '프로바 식물성 프로틴바 초콜릿 블리스' 1개 열량이 279Kcal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닥터유 프로 단백질 바' (274Kcal), '닥터유 단백질 바' (266Kcal), '랩노쉬 푸드바 마일드 초코' (256Kcal), '켈로그 프로틴 그래놀라바 고소한맛' (254Kcal) 등 5개 제품이 250Kcal를 넘었다.

제품마다 단백질, 포화지방산 함량 차이도 커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제품 1개당 단백질 함량은 최소 6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9%) ~ 최대 23g(1일 기준치 대비 41.8%)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또 조사대상 제품 1개당 포화지방산 함량도 최소 1.4g(1일 기준치 대비 9.3%) ~ 최대 5.4g(1일 기준치 대비 36%)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났다.

특히,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의 경우, 포화지방산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0% 이상이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단백질 바를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포화지방산은 혈중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급적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조사대상 제품 중 '하루단백바 카카오'의 경우 당류 함량 표시치가 실험치보다 허용오차범위(120%)를 초과한 203.8%로 나타나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 녹색산업, 13.9조 규모 해외 수출 상담회 개최

녹색산업 부문의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연결해주는 행사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25일 개막했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GGHK) 2023'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해외 발주처 40개사와 구매처 60개사를 비롯, 국내기업 180여개사가 참가한다. 발주처 및 구매처가 이번에 제시한 사업 규모는 총 105억 달러(13조9500억원)에 달한다.

국내기업은 발주처 40곳과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해 협력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韓-日 에너지정책 회담, 6년 만 재개

에너지 소비 구조 유사 공통점 가져  
탄소중립 대응·에너지 안보 강화 논의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정책 회담이 6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양국 정책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계기로 25일 이원주 에너지정책관과 미나미 료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정책 수석 국제탄소중립정책 통괄조정관이 '한-일 에너지정책 회담'을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담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유사한 에너지 소비 구조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 양국 간 에너지 정책공조 및 협력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1986년부터 '한-일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자원개발, 에너지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회담은 6년 만에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과 함께 재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최근 불안정한 에너지시장 및 에너지공급망 위기 상황 속에서 탄소중립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CFE) 활용 확대와 광물, 가스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강화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에너지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실무차원의 작업반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진청, '고온극복 융합연구동' 준공식

고온·혹서기에 안정적 농작물 생산

고온·혹서기에도 안정적으로 농작물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연구, 지원하는 '고온극복 융합연구동'이 이달 말 문을 연다. 스마트팜 기술개발의 주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30일 전북 완주군에 연구동이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준공식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농진청은 고온기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자 지난 2021년 '고온극복 융합연구동' 신축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에 2311㎡ 규모로 연구동을 구축했다.

연구동은 연구실, 실험실, 관제실, 세

미나실 등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온실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인터넷망을 활용해 작물별 로 빛(광),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재배환경을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다.

농진청이 고온극복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된 융합연구팀(TF)은 이곳에서 협업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실용화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고온극복 융합연구동에서는 농가 규모의 온실에 환기, 안개 분무 등의 냉방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을 통해 냉방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채소, 과수, 화훼 작물에 알맞은 새로운 재배 유형을 개발하고, 지능형 농장 운영에 드는 비용과 장치 설치비 등 경제성을 종합해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차상근 기자 skc8472@